

| 설교노트 “주안에서의 자유 2” (갈라디아서 3:1-5)

들어가는 말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려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교회 일은 물론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께 매여 있기 보다는 주님 일에 자신을 잡아 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섬기다보면 주안에서의 기쁨과 자유함보다는 피로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전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은혜로 받아야만 온전한 행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사이에서 헛갈려 했던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한 어조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 일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 노력,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의 유대 성도들은 할례를 받는 그들의 순종이 구원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여겼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의지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맺는말

율법주의는 워낙 교묘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겉으로만 보면 그들은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즉 동기의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앙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이 율법주의로 전락되지 않도록 항상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 묵상질문

1.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적이 있었다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나요?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수요일예배

- 장년 한어예배 7:00PM / 본 당
- 장년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 영아/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 Youth 7:00PM / 안디옥
- 영어청년 7:00PM / 안디옥
-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 한어부 월-토 6:00AM / 본 당
- 영어부 화-토 6:00AM / N-202

주일예배

- 장년 한어예배 1부 7:40AM / 본 당
- 장년 영어예배 2부 9:20AM / 본 당
- 장년 한어예배 3부 11:00AM / 본 당
- 사랑부 예배 (장애인) 1:20PM / 베들레헴

-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 유년부 예배 9:30AM / 나사렛
- 11:00AM / 베들레헴

- 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담임목사 송 경 원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데이터어 253.535.9435 | 기도원 253.847.2250



주일예배

- * 경배와찬양** 1부: 377장(새449장) “예수 따라가며”,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14장(새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3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대표기도** 1부: 이한뢰 집사
3부: 백동선 집사
- 봉헌찬양** 1부: 343장(새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3부: 하나님의 VIP 1기 수료생 “그 사랑”
- 공동체소식** 인도자
- *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3:1-5
- 설교제목** “주안에서의 자유 2”
- 말씀선포** 송경원 목사
- * 응답찬송** 1,3부: “은혜로다”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수요성령예배

예배위원

- 찬양과기도** 수요찬양팀
- 대표기도** 순자앤더슨 집사
- 제목**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함”
- 성경말씀** 사도행전 5:1-11
- 말씀선포** 송경원 목사

- 이** 1부: 이한뢰 집사
- 번** 3부: 백동선 집사
- 주** 수요: 순자앤더슨 집사
- 다** 1부: 이성훈 집사
- 음** 3부: 권태운 은퇴안수집사
- 주** 수요: 김연정 집사

드러진 예물

공동체소식

-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안내팀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요성령예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수요성령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 60기 중보기도 사역: 6/1(수)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기를 희망하시는 성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시간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식: 6/1(수) 수요예배 시.**
※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들은 로비에 있는 중보기도요청서를 작성하여 기도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디모데후련 2단계(기독교 기본진리) 개강: 5/22(오늘), 오후 1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문의: 사무실).
교재비: \$20. 장소: 교육관101호
※ 2단계: 하나님의 VIP를 수료한 모든 성도(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모든 성도들은 필히 수강해야 함)
※ 수강생의 자녀를 돌보는 탁아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봉숙오글전도사)
-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70 코이노니아: 5/28(토) 오전10시-오후12시, 새가족실.**
70대 교인 누구나 참여 가능. 로비 신청서에 사인업하시기 바랍니다(한어로 진행).
- 제직회 안내: 5/29(주일) 오후 1:15, 장소: 본당. - 안건: 임시 운영위원회 건**
- 학생부 사역자**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VBS: 6/28(화) - 7/2(토).** 대상: 2018년 12월이전 출생한 어린이부터 현재 6학년
1) 등록: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회비 납부 되어야 등록 완료) \$50(5/31까지), \$60(6/1부터)
2) 봉사자 및 중보기도자 모집 : 로비에 사인업. (문의: 남궁곤 목사)
① 교사 ② 식사 테이블 세팅 및 주차 봉사 ③ 봉사자 자녀들을 위한 Babysitting ④ 중보기도
※ **VBS Training: 6/5(주일) 오후 1시-5시. 안디옥**
- 어린이부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Kids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주간 뉴스레터와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Kids 앱으로 연결됩니다.
- 생명의 삶 6월호를** 교회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

행정사역

- 주정부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 증상처럼 아픈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주일예배 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교우동정

사역자 휴가: 봉숙오글전도사(5/18-25)

중보: Billy Wasson, Conard Goering, Larry Gibbs, Floyd Richardson,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Eric Mose, Clarence Turner, William Dungey, Ken Adkins, 인자킹, 정자열프, 미숙벤드레스, 순천터너, 박정자, 박지영